



허성무 창원시장 취임 1년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을 말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허 시장은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 한명 한명의 삶을 보살피는 사람 중심의 시정 구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올해를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창원의 기반산업 붕괴와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 등 경제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였다. 그래서 창원시 민선 7기 1년의 시정 키워드는 ‘사람’ 그리고 ‘경제’라 할 수 있다. 1년간 가장 역점을 뒀던 두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허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봤다.

Q 민선 7기 1년을 되돌아본다면

매 순간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동안 정말 쉽 없이 달렸습니다. 차량으로 2만5천km를 주행했고, 서울 출장을 18번 다녀와 1만5천km를 움직였습니다. 해외 출장을 제외하고 4만km를 달린 셈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직원들, 그리고 시민과 함께 창원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땀 흘렸던 여러 일이 떠오릅니다. 우선 창원경제 살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름의 성과도 거두

고 있고, 독립만세운동재현 등 근현대사기념사업, 무상교복 등 다양한 복지시책 마련과 특례시 추진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직 시민들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장기적 경기침체와 기존 창원이 갖고 있던 틀을 깨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Q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는 사업은

경제살리기가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인 상황에서 창원국가산단의 스마트 선도 산단 선정은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3월에 출범한 스마트 선도 산단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해 기업 생산성 제고, 근로·정주 환경 개선, 신산업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등을 실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2022년까지 매년 2천억원 이상 지원되는 메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최근 6월에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강소특구는 창원 국가산단의 브레인으로서 입주 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한층 업



그레이드시켜줄 것이며, 스마트 산단과 함께 창원경제 부흥을 이끌 쌍두마차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결방안은

현안은 지난 1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고 우리 시의 미래가 달린 특례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5만명의 기초지자체로서 면적은 서울보다 넓고 제주보다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시 통합과 3대 항만, 그리고 도농복합도시로서 행정수요가 광역시를 능가하는 정도로 현재의 행·재정적 수준으로는 광역 행정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시가 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정치권과 경남도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광역시 대신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은 특례시를 중점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국회에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정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인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특례시 지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특례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결집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대책은

통합 당시 110만 명에 육박했던 창원시의 인구가 현재 10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창원형 인구정책 수립 용역보고서(2018, 창원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시의 인구 주요 전출요인은 직업 문제(일자리)가 전체의 35.9%를 차지하고, 그 외 가족 23.2%, 주택 22.8%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보듯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주력

제조업의 장기적인 불황과 일자리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인근 김해지역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보육환경 등 문제도 얹혀 있어서, 어느 한 분야만 소홀히 하더라도 시민의 삶의 수준은 떨어지고 결국에는 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이에 제동을 걸고자 창원형 인구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물리적, 시간적 한계로 직접적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구 증가에 큰 힘이 될 것이고 저출산, 보육,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날개를 달 것입니다. 올해를 바닥으로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Q 올해를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정했는데, 구체적 복안은

창원 경제는 주력 제조업의 장기침체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을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제부흥을 위해 창원경제 뉴딜 프로젝트, 힘 되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메커니즘 강화, 내수·수출 활성화 등 4대 프로젝트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기존 제조업 구조고도화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2대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창원국가산단이 스마트 선도 산단에 선정됐고, 최근 6월에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됐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산업에 정보기술과 연구개발을 융합해 제조 혁신을 이루게 할 강력한 추진동력이 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수소 산업, 방위산업, 항공 부품산업, 로봇 산



6월 5일 수소전기버스 개통



경제살리기 대책보고회

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산업은 정부의 육성 의지와 맞물려 창원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할 확실한 산업 아이টে으로 꼽히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난해에 수소 산업 특별시를 선포하고 수소 산업 핵심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Q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수소 산업 활성화 방안은

우리 시의 수소 산업 육성계획은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사용까지 수소에너지 전 주기에 걸친 산업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공공분야 실증사업 지원으로 지역 내 전문기업을 빠르게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소 산업 기반을 착착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11월, 수소전기버스 실증사업 및 수소자동차 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5월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유치에 성공해 수소차 보급 활성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 수소전기버스 개통식과 패키징형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우리 시 수소 산업 추진을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 354대의 수소차를 보급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이며, 광역시를 포함하더라도 두 번째로 많습니다. 2022년까지 수소차 5천대, 수소버스 100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는 수소 산업 관련 다양한 실증사업을 통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기업의 투자가치를 높이는 등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 하반기 역점 추진사업과 시정 운영방안은

뭘니 뭘니 해도 올해 가장 큰 현안은 경제입니다. 경제살리기는 우리 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한 분야입니다. 스마트 선도산단, 수소 산업 육성 등 경제 부흥의 기반은 착실히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기업이나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지표

가 확실히 쌍방향으로 전환되고 시민의 삶이 나아질 때까지 거머쥔 고삐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소통행정은 제가 지향하는 시정 운영 철학이고, 기존의 토건 위주, 불통의 관 중심 행정은 계속 바뀌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경제 중심의 시정 운영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특례시 지정에 따른 다음 단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례사무와 재정권이 대폭 이양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의 실질적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길을 찾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막바지 노력과 희생자 명예회복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신항 권리찾기와 스타필드로 인한 시민갈등 봉합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구 마산지역에는 10년 이상 끌어온 3대 현안 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 개장을 앞둔 마산로봇랜드, 우선협상대상자를 찾고 있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창원형 스마트도시 테스트베드로 조성될 마산해양신도시가 그것입니다. 이들 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민선 7기 우리 시정은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실현을 위해 시민 한분 한분의 삶을 살피고 어려운 시기에 위로와 힘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을 향해 시정의 문을 활짝 열고 소외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었습니다. 요즘 지역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다면, 반드시 더 크게 비상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시민의 생활과 도시의 품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 신해양 거점도시로 도약해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찾아올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창원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R&D 거점」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추진배경

국내 최대 기계산업 메카의 혁신

- 창원국가산단은 국내 최대의 기계산업 집적지
- 전기화 및 지능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지능전기 기술로 기계산업 신성장동력 확보

국내 최대 지방도시의 첨단산업도시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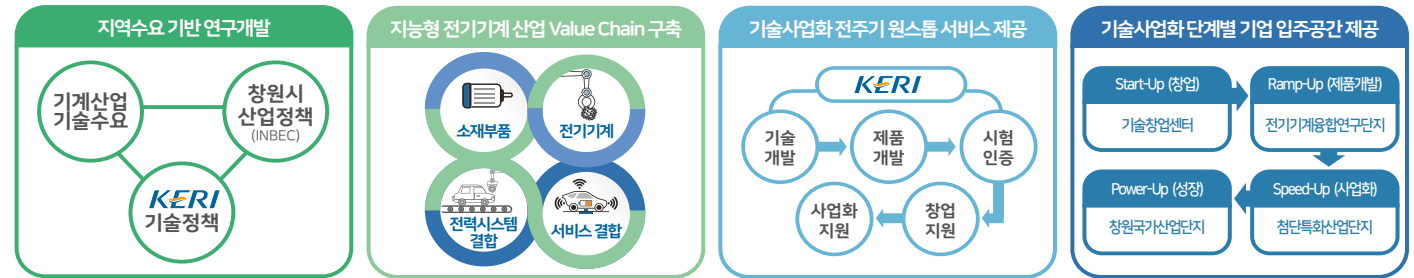
- 창원은 경남 경제 및 산업의 핵심도시
- 굴뚝산업도시에서 첨단산업도시로 전환
- 산학연관 협력으로 과학기술 중심의 도시혁신



기술사업화 모델



육성전략



목표 및 기대효과

